한생각으로 벌집처럼 일어나는 세균을 내 한마음에 집어넣어서 녹일 수 있다

☞ 21면에서 계속

서 계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능력을 가져오는 거지 누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때 그 사람, 애는 일곱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됐을 때는 참 그건 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허구헌날 울었습니다. 이건 보기가 지겨우리만큼, 진저리가 나도록 말입니다. 그 반면에 나를 그 사람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건 왜냐? 진저리가 나다 못해 나중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불쌍하더니 그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휴, 중노릇하기 어렵구나.' 피해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만큼 피하고 싶더니 '아, 이건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다섯 개가 지금 구르고 있느니만큼…. 지금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본다, 크게 본다, 현미경으로 그렇게 봐도 그것은 기계를 갖다 놓고 봐야만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랬습니다. '아하, 현미경도 바로 내 눈에 있는 것을, 내 마음의 눈에 있는 것을 그랬구나.' 하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 척추 골수에 노란 액체가 배부돼야 하고, 진득진득한 맑은 물도 돼야 하고, 역시 벌건 물도 조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깐 겉으로 발라 주는 게 있고 안으로 발라 주는 게 있고 조달하는 게 있고, 순환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이렇게 싸고 있는 보호망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는 그 세포의 모든 걸 지키고 있는 걸 보호망이라고 한다면, 이 거죽의 세포가 아니라 안 세포입니다. 그렇게 망이 돼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내가 만약에 파리를 건지려면 파리 속으로 들어가야 파리를 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그 벌레가 돼야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네? 세 가지 종류의 벌레가 돼야 내가 그것을 운영해 나가죠. 그래서 그 액체를 발라 주고 피를 공급하면서, 또는 안팎에다 발라 주면서 보호망을 튼튼하게 해 나가니까, 그 보호망에도 베어링처럼 그렇게 전부 슬기롭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거기에서 생각을 하고 얻은 것이, 그 사람 사니 좋고 나 공부했으니 좋고…, 그 모두를 둘로 보지 않아야죠. 내 몸을 끌고 다닌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큰 덩어리의 사람이 저까짓 것 미생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미생물로 인해서, 그 세균으로 인해서 벌레가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하는 거를 마음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지금 탈을 쓰고 갑니다. 인간 탈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건 탈바가집니다, 어디까지나. 조그만 탈바가지고 큰 탈바가지죠.

그래서 옛날부터 난 이런 말도 잘했습니다. "자신을 아십시오. 자신을 아신다면 전체의 근원이 그 자신의 근원이 될 겁니다." 천지의 근원도 바로 마음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우주의 근원도 바로 마음의 근원이 될 것이니 그 어찌 보람 있지 않겠느냐 하구요. 그럼으로써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는데도 유유히 끌고 다닐 거라고요.

물론 죽을 것도 영 죽지 않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한다면 그건 아니 됩니다. 탈을 썼다가 버릴 때가 오면 버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 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못 하고 그냥 애를 쓰면서 고통을 받는 거는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세상에 한생각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벌집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세균이 벌집처럼 일어나는 걸 내 한마음에 집어넣어서 녹일 수도 있고, 그 한마음에서 벌집처럼 일어나게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다섯 가지의 오신통이라고 할까요? 그걸 수레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본을 아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거기에서 그 수레바퀴는 어디에든 쓸모가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말입니다, 병균을 집어내기는 했는데 이 병균이 어디서 온 걸 모릅니다. 그러면 요거 한 가질 연구해 냈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만든다 하면 다른 생명이 죽습니다. 그런다면 이 연구는 하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하나 하는 데 인체의 다른 생명들에게, 세포에나 모든 것에 지장이 없이 하나만 죽이는 연구에 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더하고 덜함이 없으면서도 내 주인공의 한마음의 베어링은 스스로 굴러가면서 그냥 여지없이, 무슨 부작용이 없이 말입니다. 파워를 일으킬래도 일으킬 수 있고, 일으켜서 그쪽 부분을 좋게 하려면 좋게 하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원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부처님 법이라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에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하는 말인데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못난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이해를 잘해서 연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학식이 많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고 요즘은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학식이 많았더라면, 거기에 변동이 얼마나 가소롭게 들어갔을까? 또는 요동을 떨고 잘났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안다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 적엔 애가 돼서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애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애가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알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다면 모든 게, 고개 바짝 들고 '나' 라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면, 모두가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물리가 그대로 천차만별로 다 터지지 않을까? 이걸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계절로 나누었고, 대의적으로 넷으로 나눈 게, 태로 나고 알로 나고, 화해서 나고, 질척질척한 데서 난다. 이게 넷으로 나누었지마는 우리가 태로 나는 거, 물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우리 지금 인간으로 사는 동물이나 작든 크든 태로 나는 거는 사람 될 수 있는 여건을 100%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태로 나지만 어떤 건 알에서 나옵니다. 알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냥 질척질척한 데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화해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가지로 변화가 옵니다. 그것도 화함입니다. 순간 순간 화해서 나는 것도 있으니, 이 공중에 화해서 생기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 어떠한 병이 들었다 한다면 파워를 일으키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도 있지마는 안에서 파워를 일으켜서 생기는 세균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비가 됩니다. 세포에서 순환이 되지 않는가 하면 속 세포에서 순환이 안 되고, 이 껍데기가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될 수 있는 그런 갈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의 모든 게 돌아가는 이 속 껍데기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두가 생명체예요, 모두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구멍이 뚫렸는데 힘이 없다면, 여기서 내밀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라면 내밀기 이전에 하나로 그냥 녹여라 이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심성이라는 거는, 생명이라는 그 존재가 바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모든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균들도 따라서 그렇게 발휘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둘로 보지 않는다면, 바로 둘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내가 된다면 순간 똥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도 멀고, 그 마음 모르면 가까워도 멀고 마음을 알면 멀어도 아주 가깝다 이 소립니다. 이거를 말해서 초월했다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할 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잘하시면 아주 체계 있는 소리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게 하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된다면, 순간 그리로, 즉 말하자면 의사가 돼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도리가 거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픈 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더 잘 압니다. 딴 의사보다도, 박사가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픈 건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자기가 자기 몸을 치료하는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이 한 부분이라고 그러지마는 이것이 전체 삶의 보람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어떤 때는 말하다가도 이렇게 잊어버립니다마는 이 세균이 못 쓸 건 쓸 거에다가 하나로 뭉쳐 버리고 쓸 건 남겨 놓고, 못 쓸 건 그렇게 하는 동시에 물로 흘려 버리면 그냥 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음공부 한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의 한생각의 눈이라면 그것이 빛과 같은, 광선이나 같은 겁니다. 빛의 에너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쏜살같이, 한생각에 그냥 즉시에 녹아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은 물론 내놓을 수도 없고 체도 없습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우주간 법계에서 안다면…. 이것을 못 믿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딴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데…."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 이 사람아. 네가 알고 있는데 하나도 몰라? 네가 알고 있으면 전체가 아는 거지, 이 사람아, 네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모른다고 해?" 하더랍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의학적으로 지금 생태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고친다고 하더라도 30%밖에는 확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70%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보이는 걸 아무리 집어내도 자꾸 새 삼스럽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얼마나 폐병 환자가 그냥 죽어 갔습니까? 지금도 폐병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저 초기에 고치는 것은 결국은 더 심하지 않게끔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그 약일 뿐이죠.

여러분의 정신에 달렸습니다. 모든 병 증세는 어디에다가 맡기지 말고,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해 나가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공부한다'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겠지만요, 학술적인 공부나 이론적인 공부, 철학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에 붙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아시면, 자신을 안다면 바로 상대에도, 상대성을 나의 그 원형에다가 바로 넣어서 하나로 굴리기 때문에 이것은 걸림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내 몸은 여기 두고도 내 몸이 수없이 나투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써 내가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그것을 자꾸 체험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아마 마음일 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2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개 바짝 들고 '나' 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면 모두가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물리가 그대로 천차만별로 터지지 않을까요.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